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 길명사

봉래 양사언 선생의 영정과 위패 봉안하고 제향 올리는 사당



최 중 규 포천명유외 회장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산 175-10에 위치한 길명사와 양사언 선생의 영정.

삼등현감(三登縣監)·평창군수(平昌郡守)·강릉부사(江陵府使)·함흥부사·철원군수·회양(淮陽)군수를 지내는 등 지방관을 지창하였다.

자연을 즐겨, 회양군수 때 금강산(金剛山) 만폭동(萬瀑洞) 바위에 '봉래풍악원화동천(蓬萊楓嶽元化洞天)' 8자를 새겼는데 지금도 남아 있다. 안변(安邊)군수로 재임 중 지릉(智陵)의 화재사건에 책임을 지고 귀양갔다가, 2년 뒤 풀려 나오는 길에 병사하였다.

시(詩)와 글씨에 모두 능하였는데, 특히 초서(草書)와 큰 글자를 잘 써서 안평대군(安平大君)·김구(金絿)·한호(韓濩) 등과 함께 조선 전기의 4대 서예가로 불린다. 작품집에 《봉래시집(蓬萊詩集)》이 있고, 작품 중에는 많이 알려진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피외로다...' 등이 있다.

영정과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 올리는 사당이다. 포천유림에서 1988년 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주양씨 문중과 포천군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립하였다.

건축양식은 겹처마 맞배 지붕에 이익공의 방풍판 목조건물이다. 영정과 위패 봉안이 1991년

도에 이루어지면서 향사를 올리고 있다.

봉래 양 사 언(楊士彦, 1517~1584)선생은 분관 청주(淸州), 자 응빈(應賓). 호 봉래(蓬萊)·완구(完邱)·창해(滄海)·해객(海客). 1546년(명종 1) 식년과과(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 대동승(大同丞)을 거쳐

- 지정번호 : 포천시향토유적 제 45호
- 수량 및 면적 : 2동(사상36.52㎡ 외삼문 12.28㎡)
- 소유자 : 길명사 관리위원회
- 소재지 : 일동면 길명리 산 175-1
- 지정년월일/고시년월일 : '2006. 4. 5
- 관리단체/관리무자 : 양문택

길명사는 봉래 양사언 선생의

교육에세이 31

청소년기를 슬기롭게 보내자

청소년기를 일컬어 흔히 질풍노도(疾風怒濤, Sturm und Drang 1770~1784)의 시기 또는 제 2의 반항기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모나 성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고 불안, 갈등,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문화사조 중에서 젊은 문학가들에 의해 폭발적으로 추진되었던 혁명적 문화 운동에 견주어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청소년기는 심신의 발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부모와의 심리적 이유(離乳)를 시도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 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삶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각양각색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학교 교육은 지나치게 경쟁 지향적이고, 지식 전달 위주의 입시교육에만 관중되어 사람 됨됨이 교육, 즉 인성교육 부분이 교과교육에 비해 소홀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청소년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갖가지

일탈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청소년들의 방향은 여러 가지 비행을 야기하여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 반적인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며 교육을 통하여 사회 병리 현상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 강화로 차세대 청소년들에게 물질보다는 인간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훌륭한 인재 육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행동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소년기를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선,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 가는 시기로, 인생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 창의성에 바탕을 둔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여 의미 있는 인생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언젠가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원대한 꿈을 갖기 바랍니다.

또한, 책 속에는 인간이 역사적으로 쌓아 올린 지혜뿐만 아니라 글을 쓴 사람의 정신도 담겨져 있습니다. 독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독서는 동서고금의 위대한 사상이 및 학자들과 친밀히 교제함으로써 가치 체계를 확충하며 지식을 넓혀 인격의 완성을 돕는 것은 물론, 자신감을 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며 내면적인 사고(思考)를 깊게 하는 것므로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건강해야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지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특별히 운동을 하여 체력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누구나 한번은 반드시 거치게 되는 청소년기를 우리 학생들이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 속에서 바르게 성장해야 하며, 나아

지 정 주

포천여자중학교교장



셰익스피어 에세이

그대의 사랑을 위해 시를 권하는 이유



박 정 근 포천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사람들의 손에서 시집은 멀어진다. 먹고사는 문제라는 호구지책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리나 선함, 아름다움 등의 형이상학적 가치는 그저 삶의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빵이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성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도 사람이 사람이 없다면 단 하루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이 삶의 활기를 찾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이다. 우리가 기르는 애완견이나 식물조차도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시들거리는 것을 보면 아마 사랑은 만물의 섭리임에 틀림이 없다.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글이 바로 시다. 시인은 사람의 사랑의 아름다움, 진실성, 일관성, 그리고 절박성 등을 느낄 때,

“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사랑하고 아무 기억도 없이 헤어질 수 있는 자유로움이 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사랑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감동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철학적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염원하는 것은 아닐까.

”

그 사랑 아름다운 시어로서 노래한다. 사실 사람의 사랑은 정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기복이 심하기에 사랑의 부재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시가 사랑의 주체인 사람보다 생명력이 길어서 후세의 입에 오르내리며 그들의 사랑까지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시와 사랑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그의 소네트에서 "어쩌면 내가 그대의 묘비를 쓰게끔 오래 살지도 모르고, / 어쩌면 내가 흙속에 썩고 있을 때 그대 살아 있을 것이다. / 어쨌든 그대의 기억은 죽음도 빼앗아 가지 못하리라. /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다 잊혀진다 해도." (소네트 81)

셰익스피어가 노래하는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가 말하는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대적 사랑이 매우 즉흥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사랑이 감상적이고 구시대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진실한 사랑이라면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보다 고귀한 감정이나 추억으로 남아서 연인들 간의 마지막 순간의 결정체처럼 남아있을 수 있으리라.

시는 사랑에 대한 결정체에 대한 기록으로 비문처럼 오래 남는다. 비문에 새겨진 시는 비록 죽은 자에 대한 글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흙으로 이루어진 죽은의 상징인 무덤과는 다르다. 무덤 속에 묻힌 연인의 몸은 ?? 변형되고 말지만, 비문에 새겨진 사랑의 시는 읽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물들이고 눈물을 자아 내기도 한다.

또한 연인의 죽음이라는 유체적 한계를 넘어서 사랑의 영원성으로 감동을 줄 수도 있다. 어느 여인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녀의 죽음을 넘어서 자신의 사랑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은 참사랑의 표본이다. 몸이 필수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인간에게 가장 친밀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것의 유한성은 항상 인간을 서늘하게 하지 않는가. 이러한 유한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가 아닐 수 없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의 시를 쓰는 이유를 "그대의 이름은 시에 의해서 영생하리라. / 나는 한번 죽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지만, / 그리고 땅은 평범한 무덤만을 주지만, / 그대는 사람들의 눈 속에 누워라. / 그대의 비문은 나의 정다운 시라. / 그것은 아직 창조되지 않은 눈물이 있고, / 이 세상에 태어날 생명들이 그대의 이야기를 하리라. /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소네트 81)라고 언급한다. 결국 그가 노래하고 있는 소네트가 사랑의 영원성을 가져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리라.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사랑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고귀성을 가지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감각적이고 찰나적인 사랑은 현대의 포스트모던적인 파편성에 기인하고 있는지 모른다.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어느 날 우연히 만나서 사랑하고 아무 기억도 없이 헤어질 수 있는 자유로움이 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인간의 사랑의 유한성을 극복하는 감동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철학적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염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기에 시인은 그런 사람의 마음속을 훑어보고 이상적인 사랑을 제시한다. 시를 통해서 인간적 사랑의 비극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셰익스피어는 이 소네트의 마지막 두 행에서 "그대는 언제나 살리라-내 붓은 그런 힘이 있네-- / 숨결이 약동하는 곳, 사람의 입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사랑의 시가 사람들의 입 속에 오르내리며 그들의 사랑까지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시와 사랑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파괴해를 맞아서 사랑을 기억하는 연인들이 많아졌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은 대단한 복을 받는다고 믿고 서둘러 사랑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모습도 두드러진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들이 맺은 사랑의 진실성과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사랑의 소네트가 새해를 맞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원한다.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회원 모집

- ◆모집대상 : 경기민요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 국악 중·고등학교/대학교 진학을 원하는 초·중·고등학생
- ◆모집과목 : 경기민요, 장구, 전통무용
-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3-4 유림회관 3층
- ◆연 락 처 : ☎ 031-535-1051/ 011-667-7129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는 포천시에 경기민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4년3월16일 창립한 단체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소리 전수는 물론 우리사회 노인분들과 함께 흥겨운 가락을 함께 나누는孝공연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신읍동 23-4번지 유림회관 3층에 새롭게 연습실을 마련하고 학생들은 물론 시민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경기소리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영평팔경가를 소리극으로 탄생시켜 매년 무대에 올리고 있으며 올해에도 역량 있는 소리꾼의 캐스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력은 비록 부족해도 경기소리에 관심과 뜻이 있는 학생이나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지부 연혁

- 2003년 포천시 일동면 노인을 위한 제1회 박영실 효 국악한마당 공연
- 2003년 남산한옥마을 경기민요 소리 한마당 공연
- 2003년 설날 칠성 놀이마당 우리소리 공연
- 2003년 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 주최 제1회 국악한마당 공연
- 2004년 제2회 박영실 효 국악한마당 공연
- 2004년 경기소리보존회 창립공연 및 박영실 개인발표회 공연
- 2004년 포천시민의 날 행사 경기소리 공연
- 2004년 경기문화재단 주최 2004년도 사랑나누기 공연
- 2004년 산정호수 악새꽃 축제 축하공연
- 2004년 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 주최 제2회 국악한마당 공연
- 2005년 제3회 박영실 효 국악한마당 공연
- 2005년 특가노인 물론 위로공연
- 2005년 동동 이해조 문학제나 축하공연
- 2005년 제1회 포천시 장애인 어울마당 공연
- 2005년 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제2회 정기공연
- 2005년 KBS국악한마당 출연
- 2005년 포천시 외국인근로자 추석맞이 페스티벌 공연
- 2005년 창작소리극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제1회 공연
- 2006년 제4회 박영실 효 국악한마당 공연
- 2006년 포천시 사회복지과 효친자 공연
- 2006년 대한노인회 포천시지부 공연
- 2006년 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제3회 정기공연
- 2006년 장애우와 함께하는 소리마당 공연
- 2006년 포천 성자로마마 위문공연
- 2006년 포천시민대중 타종시 축하공연
- 2006년 포천 이동 숲축제 축하공연
- 2006년 창작소리극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제2회 공연



박영실 지부장프로필(사진)

-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목계월 선생) 경기민요 이수자
- 백제예술대학 전통공연과 졸업
- 한국국악협회 포천시지부 민요분과위원장/이사/대의원
- 박영실 경기소리연구소 소장
- 포천시 여성대학 강사
- 198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목계월 경기12장가 전수소 입문
- 1996년 목계월 경기민요 보존회 전수
- 200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
- 2002년 일동초등학교 국악반 강사
- 2003년 포천 일동초등학교 국악반 강사
- 2003년 소울음 동남고등학교 국악반 강사
- 2003년 경기문화재단 경기민요 지정 강사
- 2004년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 지부장
- 2005년 포천시립도서관 어린이 여름학교 경기민요 강사
- 1998년 전국 백일장대회 장원
- 1999년 제8회 전국 경서도소리 경창대회 준우승상
- 2000년 전국 민요경창대회 특출민요부 우수상 수상

